

AI로

위축된 양계농가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 성황리에 종료

이번엔 명동이 아닌 동대문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동대문 두타빌딩 앞은 고소한 치킨냄새로 진동했다. 3년여만에 재발한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와 계육업체의 회생을 위한 홍보행사를 벌였기 때문.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AI로 실의에 빠져 있는 육계농가와 고통을 나누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우리 양계농가 안아주기(Free Hugs)*' 행사로 첫 포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한형석 회장을 비롯한 가금관련 단체장들과 연예인농촌돕기운동본부 김해곤 회장, 영화배우 태현실, 탤런트 서혜린씨가 함께 해 시민들에게 닭고기 및 오리고기, 계란 요리를 나눠줬으며, 국내산 닭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닭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AI 배상책임보험 20억원 가입에 대한 대 국민 홍보도 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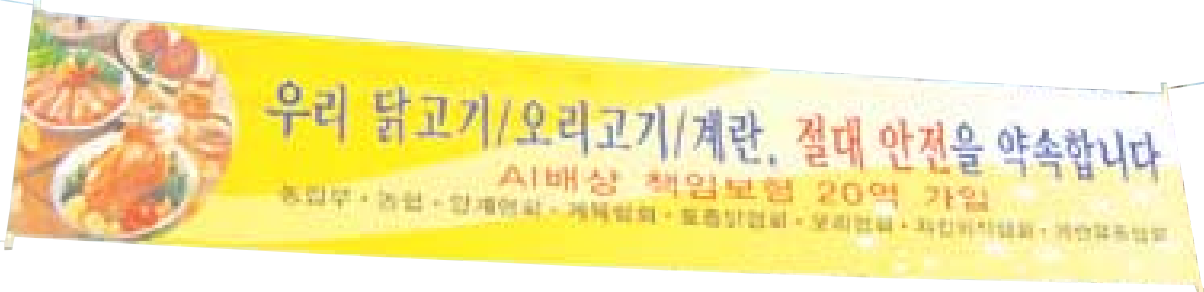
이날 행사를 위해 총 2천여명 분의 닭고기·오리고기·계란요리와 400마리의 치킨이 준비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행사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음식이 동이 났다.

한편 행사장 한 켠에 마련된 '양계농가에게 희망메시지 전하기' 행사에는 일반 시민을 비롯 외국인들도 동참해 AI로 실의에 빠진 우리 양계농가에게 큰 힘을 북돋아 주었다. 

- 취재 · 김효진 기자(hj@chicken.or.kr)

* '안아주기' 운동은 호주의 '후안 만'이란 청년이 2003년 시드니 거리에서 '공짜로 안아드려요' 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아주며 시작된 것으로 낯선 사람과의 포옹을 통해 세상의 온기를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생긴 운동이다.





- ① 행사에 참석한 가금관련단체장 및 연예인들이 앞장서 닭고기를 시작하고 있다.
- ②③ 예인농촌진흥기운동본부 김해곤 회장과 영화배우 태현실, 탤런트 서혜린씨가 시민들에게 닭고기·오리고기·계란 요리를 나눠주고 있다.
- ④ 민들에게 닭고기 요리를 나눠주고 있는 본회 한형석 회장
- ⑤⑥ 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양계농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우리 양계농가 안아주기(Free Hugs)' 행사에 본회 한형석 회장도 동참했다.



73일 반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맛있는 닭고기 요리를 먹고 있다.
 8 각종 닭고기·오리고기·계란요리가 전시되어 있다.

10 많은 시민들이 시로 실의에 빠져 있는 양계농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희망메시지 보드에 격려의 글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12 20억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를 크게 확대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우리 닭고기를 안심하고 먹어도 됨을 홍보했다.

